

대행 스님

생활 속에서 수없이 나오는 것에 끄달리지 말고 속지 말라

말의 중요함을 알면서도

질문 스님의 가르침 받들어 항상 말과 행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다가도 감정이 격해질 때는 거침없이 거친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한마디 말의 중요함을 알기에 습을 녹이고자 하지만 자꾸만 제 의식에 속게 됩니다. 한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변 언젠가 흑인이 어린앨 낳아서 까만 사람이 까만 걸 끌고 가면서 까만 초콜릿을 먹이면서 가는데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속으로. '허허 세상에, 콩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어쩌면 저렇게 한 치의 에누리도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흑인이 흑인을 낳지 백인을 낳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참, 철두철미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철두철미할까.'

이 세상만사가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도 다른 거는 또 생각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내가 마음먹고 행하고 하는 것이 입력이 된다는 것을요.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요다음 생에 다시 진화돼서 바뀌나올 때 바로 모습을 어떤 걸로 가져 나와야 될까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죠. 물론 나 같은 사람은 지렁이가 되든지 구더기가 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말입니다. 삶은 다 똑같으니까 말입니다. 차원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이 자식이 너무 불효를 저지르고 그래서 "저놈은 죽어서 꼭 소가 될 거야. 미련스럽기만 하고 말이야." 이러고 항상 그랬는데 아, 딴은 죽어서 소가 됐답니다. 소가 돼서 자기네 그 소 매 놓는 데, 외양간이라 그러죠? 외양간에 새끼를 낳았는데 말입니다, 그 새끼가 그 어미한테는 안 가고 자꾸자꾸 그 주인 부부한테 자꾸 비비고 그렇게 매달리거든요. 아이, 매물을 주면 먹지 않고 말입니다, 콩이나 이런 거 그냥 쒀서 다시 줘야만이 이렇게 먹고 아, 이러니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는 어느 스님이 오시니까 하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그 스님한테 여쭤봤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소는, 당신이 죽으면 미련스럽게 소가 될 거라고 그러던 아드님입니다." 아,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 엄청나고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 소는 소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저, 그 콩하고 짚하고 썰어서 삶는 거 있죠? 여물! 여물을 쒀서 먹이는 데도 새끼와 어미, 그것이 다 같이 먹도록 그 스님이 그냥 놔두라고, 그거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길을 걸어 봐야 알 바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는 그냥 그 소 모습을 가졌으니 소 행동을 해야지 별수 있나요? 아무리 속으로는 '내가 사람이었는데….' 하더라도 소 허물을 썼으니 소 행동을 해야지 별수 없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애탄지탄하고 사람들한테 발버둥이 치고 하소를 하고 음메음메 하고 애를 써도 그거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전연 다른 세계입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오늘 이렇게 사람으로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올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영이란 본래 체가 없는 거라, 즉 말하자면 원자에서 입자가 수만 개로 퍼지듯이, 또 하나로 뭉쳐지듯이, 벌어지고 뭉쳐지고 이렇게 작용을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 전체가 돌아가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화돼서 해 나온 과정을 증명하려면 모두 여러분의 몸속을 보십시오. 그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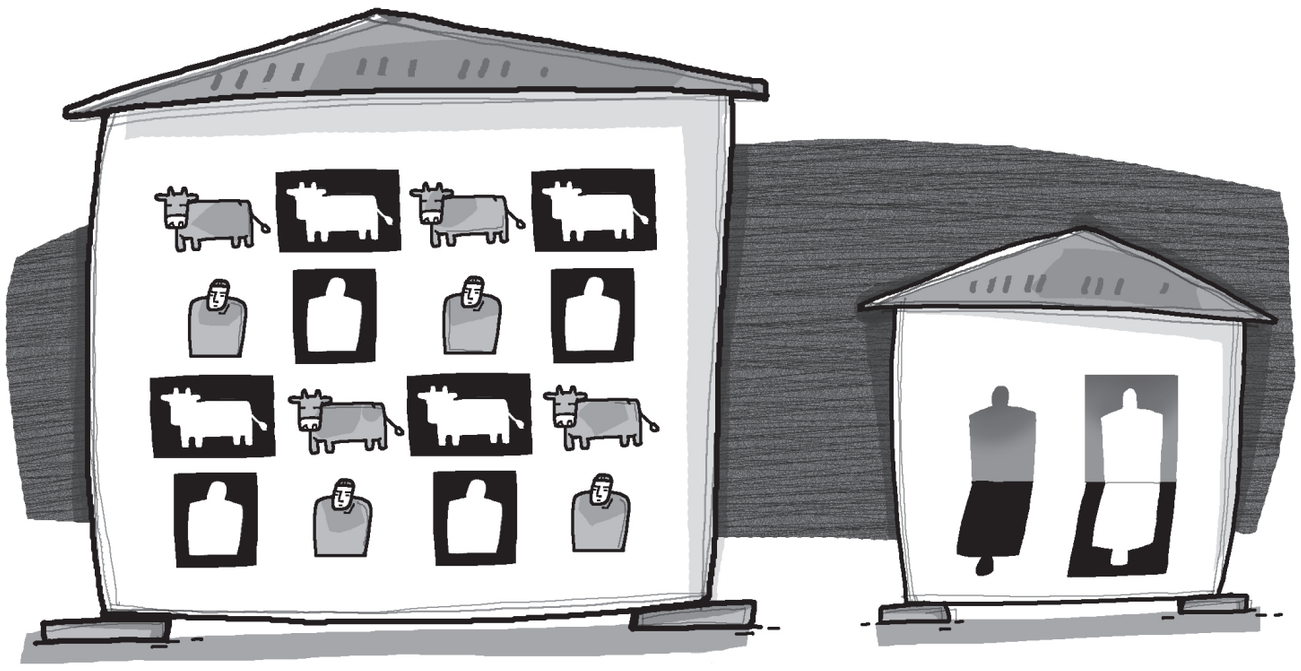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예를 들어 '야, 네 몸인데 네 몸을 건강하게 끌고 다녀야지.'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입력이 된다면 그대로 그 마음이 전체에 입력이 되는 것이죠, 의식들이. 그래서 나를 '아, 몰랐더니 이게 내 집이고 내 몸이래.' 하고선 모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두뇌입니다. 마음이 바로 한 찰나에 두뇌로 올라가서, 즉 바른쪽 왼쪽의 그 작용의 핵심이 바로 누진입니다. 누진이 바로 사대로 통신을 합니다. 한마음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그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파워를 일으켜서 잘못하면 살이 굳어지고 세포가 굳어지거든요. 제집이 없어지거든요. 제집 망하는 거를 누가 좋아합니까. 제집이 망가지는데 누가 좋아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마음의 주인이 없으면 그 의식들이 들고 나면서 그냥 뭐, 영계성이든지 세균성이든지 업보성이든지 유전성이든지 다 끌어들여서 파워를 일으키는데, 좋은 것도 끌어들이고 나쁜 것도 끌어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 놓고 돌아가는 것을 만약에 이 주인공의 그 주장자를 완벽하게 세우고 공부를 할 걸 다 한다면 그 모든 게 그냥 삽시간에 바깥으로는 털구멍을 통해서 보살의 행으로서 화하게 되고, 안으로는 안대로 보살의 행으로서 화하게 되니까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 이런다면 그냥 믿는 것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행동, 말, 이 모두가 뜻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뭐,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 이러더라도 말로 하고 몸뚱일 잡아 가지고 때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붙잡아야 몸뚱이도 오지 마음을 붙잡지 않고 자꾸 욕을 하고 "아이구, 요놈의 새끼. 너는 배울 시기에 못 배우면 깡통밖엔 못 차." 이러고 갖은 욕을 하면서 불안을 격화시키고 온통 그냥 집안 식구들을 다 그냥 북북북북 긁어서 화를 내고 인제 이런다면 그것이 어떻게 입력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말한 대로 그냥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아주. 그리고 그 사람은 자꾸 뭐, 자식이든지 누구를 막론해 놓고 부모든지 자꾸 달아나갑니다, 추우니까. 보금자리가 너무 쌀쌀하고 추우니깐 말입니다. 따뜻한 데로 찾아가느라고 자꾸 달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모든 거를 다 거기 맡겨 놓고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한다면 같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